

실사구시 학풍의 집성자, 완당 김정희

서 경 요 |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교수

완당(阮堂)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영정(英正) 연간 문예부흥의 난숙기라 할 수 있는 정조 10년에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아 군서(群書)를 널리 섭렵하여 '온오(蘊奧)를 궁리하였고'¹⁾ 벼슬은 규장각 시교, 호서안염사,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말년에 가화(家禍)와 권돈인의 예론(禮論)에 연루되어 제주도와 북청에서 남찬북적(南竄北謫)의 생활을 12년간 하게 되었지만, 이 기간은 그가 학예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며 선학(禪學)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고, 경기도 파천에서 71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는데, 그의 이러한 생애를 세상 사람들은 송대의 소식에 비겨서 말하기도 한다.²⁾

완당은 연암의 계통을 이은 초정 박제가에 종유하였고 신작, 정약용, 이덕무 등이 그의 선구가 되어 당시 실용·실증·실효의 학풍을 계승하고 더 나아가 청조의 옹방강, 원원과 학연을 맺고 그들을 통한 여러 학자와의 교류로 청대고증학의 핵심을 파악하여 실사구시의 학풍을 크게 발양하였다. 이에 완당은 경학, 금석학, 그리고 예술에까지 실증

적이고 과학적인 연구태도를 적용하여 사계의 신기원을 열었다.

완당의 학문적 태도는 '존고(存古)'를 제일의(第一義)로 삼고³⁾ 항상 원류를 궁리하고자 하였으며 사승(師承)이 있고 가의처(可議處)를 찾아 어느 한 문호에 치우치지 않고⁴⁾ 칙물궁리(則物窮理)에

있어 그 기준을 실사에 두고서 좋은 점을 택하여 절충하는 객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실사구시설'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완당은 학문을 하는 데 있어 실사구시가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의 출처는 한대 하간현왕의 '修學好古, 實事求是'에 두었는데, 이것은 진화(秦火) 이후에 없어진 경서에 대한 고증의

기반으로서 '務得事實, 每求真是'⁵⁾ 즉 사실에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완당의 사상적 중심은 유학의 본래 정신인 성현의 도를 실현하는 데 있다.⁶⁾ 이것에 배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거운 공소(空疎)의 술수와 선입견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비경험적이고 관념적인 선입견은 기준이 없어 지리하며 '不求其是'하고, 공소한 술수는 근거가 없어 '不實以事'하므로 사실에



김정희 영정

“

완당의 금석학은 우리 나라 고대 문화의 연구 대상으로서
 웅방강의 감별이나 감상을 위한 금석학에 반하여
 실제에 응용할 수 있을 만큼 발전시켜 금석을 자료로 경사를 연구하고
 우리의 역사를 뚜렷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

근본하여 사실적인 판단과 가치판단을 겸할 수 없다는 것이다.⁷⁾ 여기서 사실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사회적인 도의와 덕행의 사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⁸⁾ 그러면 선입견과 공소한 술수를 버리고 무엇으로 해야만 성현의 도에 이를 수 있는가. 그것은 한유(漢儒)의 경전에 대한 훈고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훈고는 모두 사승이 있어 극도의 정실함을 갖추면 명변(明辨)하여 공소한 데로 떨어지지 않고 '好古求是'하므로⁹⁾ 성·도·인의 등의 개념을 사람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훈고는 당실(堂室)에 들어가기 위한 문경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만약 훈고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훈고만을 위해서 골몰한다면 이것은 시복과 같다고 하였다. 여기서 완당은 훈고를 목적으로 삼은 한학의 한계를 지적하여 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훈고의 장점을 들어서 훈고를 버릴 것 같으면 너무 고원한 곳에 머물러 사의(思議)를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하여 송학이 도학을 천명하여 고인이 미처 들어내지 못한 바를 들었던 공헌은 있으나 훈고를 멸시한 유폐를 지적하고 있다.

성현의 도란 인간의 주체적인 행동, 즉 궁행(躬行)에 있으니 허론(虛論)으로서 비(非)에 달아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론(空論)을 숭상하지 않고 실한 것을 마땅히 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허탄한 것은 증거가 없어 묘명(杳冥) 속을 헤매고 空闊한 곳에서 是非를 明辯하지 못하므로 본의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객체와 주체 파악에 있어 그는 모든 선택의 기준을 사실에다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聖賢의 道란 이론과 실재가 잘 조화될 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 위에서 옳은 것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학과 송학의 경계를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며 정현·왕숙·정자·주자의 장단을 서로 비교할 것도 아니며, 주자·육상산·설원·왕양명의 문호를 세워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평심정기(平心靜氣)하여 박학독행(博學篤行)하는 태도를 오로지 위주로 삼는 그것만이 실사구시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주체를 평정하여 고원(高遠)한 것에 애쓰지 아니하고 절문(切問) 근사(近思)하여 가치판단의 기준을 사실에서 구하고 박학으로 사실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고증하여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실천 궁행을 하는 것만이 실사구시에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완당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허사(虛事)가 아니고 실사(實事)인 경험적 사실과 주체적 행동인 정신적 요소로서의 궁행이 합일될 때 성현의 도에 이를 수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시비를 사실성에서 구하는 데 물리적인 사실과 도의적인

사실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완당의 실사구시설은 그의 학문적 태도와 방향인 존고주의와 절충주의를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한학의 수단으로서의 훈고와 송학의 논리성을 택선(擇善)하여 청대 고증학의 진수로 종합하고 지양시킨 탁견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완당의 경학에 관한 문편은 그가 저술을 즐겨 하지 않

고 또한 원고를 남기려도 하지 않아¹¹⁾ 뚜렷한 것이 없고,

청대 학자의 문집을 통한 제요가 그의 문집에 그대로 편집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척독(尺牘)에 역(易)과 예에 관한 단편적인 것들이 산견(散見)되어, 좀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금석학에 있어서는 그의 고증성을 엿볼 수 있는 문편으로 『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이란 별책이 나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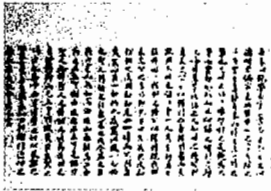
완당의 금석학은 우리 나라 고대문화의 연구대 상으로서 옹방강(翁方綱)의 감별이나 감상을 위한 금석학에 반하여 실제에 응용할 수 있을 만큼 발전시켜 금석을 자료로 경사(經史)를 연구하고 우리의 역사를 뚜렷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에 의하면 금석은 일편린이라도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한 시승보다는 낫다고 한다. 또한 고인이 금석을 한낱 고물로서 애완함에 그치지 않고 보충하게 여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²⁾고 하여 금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진흥이비고(眞興二碑攷)”에서 승가진흥순수비(북한산비)와 함흥진흥순수비(황초령비)를 대

조하여 정세(精細)한 고증을 하고 있다. 양계초는 청대고증학의 치학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① 먼저 유심히 사물을 관찰한다. ② 동류나 상관 있는 것은 모두 나열하여 비교 연구한다. ③ 비교 연구한 결과로 자기의 의견을 창출해 낸다. ④ 의견을 근거 있게 한다.¹³⁾



세한도

이상과 같이 4단계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것을 완당의 “진흥이비고”

와 비교 분석해 보면,

- ① 무학(無學)의 비라고 와전되어 오는 북한산비를 김경연, 조인영과 더불어 반복하여 자세히 직접 관찰하였고 ② 진흥왕순수비의 동류자인 황초령비의 탁본과 비교하여 연구하고 ③ 그 결과 진흥고비임을 자기의 의견으로 내세우고 ④ 『삼국사기』, 『문헌비고』 등의 전거(典據)를 들어 자기의 의견을 입증하고 있다.¹⁴⁾

위와 같은 치학 방법은 전자의 것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의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고증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금석학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조계지설(弔詭之說)을 깨트려 명판(明辨)하는 것이라¹⁵⁾고 하여 금석학의 연구가 사실을 옳게 가리키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다. 완당은 우리나라의 고비와 편액 등 금석문에 대한 연구로 민족문화에 침잠하여 고증을 통한 전통성을 밝힘으로써 주체적인 인식을 선명하게 하였으며, 서체에 대한 연원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완당의 서예술은 종정비갈의 고금문을 연구함에

“

완당의 학문적 특징은
 客體와 主體를 모두 사실에다 두고
 물리적인 대상만 아니라 정신적인 주체를
 잘 조화시켜 나가는 데 두고 있다.

”

있어 전예(篆隸)를 접하였고 그 원류가 전예에 있음을 체득하였다.¹⁶⁾ 그리하여 전예의 고법을 투득(透得)하여 특히 한예(漢隸)를 득력처로 삼고 화법의 조가(朝家)를 예서라고 하였다. 예법은 방경(方勁)함과 고졸(古拙)함을 최상으로 삼는데 그 줄치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한예의 묘함이 거기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줄치는 흥중에 청고하고 고아한 뜻이 없으면 이무리 다공(多工)하더라도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흥중에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卷氣)가 없으면 완하(腕下)에 발현될 수 없는 것이다.¹⁷⁾ 위와 같이 예법의 신결을 표현에 앞서 심의를 존중하는 데 두었으며, 형태의 묘사를 넘어서서 대상인 물체의 참뜻을 파악하고 그 참뜻을 구함에 있어 작가 자신의 사색을 통하여 얻어지는 주관적인 면에 있다고 하여 고결한 인품을 숭상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예술은 '不在形似, 不在蹊徑'¹⁸⁾하여 형사(形似)보다는 인품의 고고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학문적 태도를 적용하여 중가(衆家)의 장점을 모아 한예와 진당(晉唐)을 융합한 일법(一法)을 독창하였는데,¹⁹⁾ 그는 심의와 문기를 사실보다도 중시하였으므로 그의 필법은 '不離有法, 不在有法'²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예서관은 줄치를 절묘의 경지로 보는 문인취미의 극치로서 서화를 구별하지 않는 그의 예술론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그는 사란(寫蘭)에 있어서도 예법과 동일하게 보고 화법을 가장 꺼린다고 하였다.²¹⁾ 화법을 버려야 하므로 속기를 버리고 또한 습기(習氣)를 떠나 사실의 기교보다는 인품의 고고함을 중시하여 내적인 사상성이 형상에 앞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격조 높고 범인이 따르지 못하는 경지는 다만 모방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줄지에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지는 다작을 통하여 전심으로 노력함으로써 만분의 일인 묘이를 터득하여 흥중에 오천권을 지니고 있는 풍부한 교양과 금강안을 가지고 감상할 수 있는 자만이 이념의 미를 필묵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서화관을 우리는 완당의 작품 '세한도'를 통해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데, 그 그림은 문자향과 서권기가 단순히 대상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심의를 표현하였다는 데서 문인화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

그의 서에 관한 연구는 수 천년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사상사적 일면을 보여 주고 있으며, 서예의 변천과정을 밝혀 독립적인 것만이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 주었던 것이다. 당시의 서세계에 대하여 지적하기를, 고루와 심체를 버리지 못하고 그 폐단을 전습(傳習)하여 구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더구나 서의 올바른 내력과 자체의 유적조차 망각하고 있다는 병폐를 비판하였다.²²⁾ 여기에 완당이 서법의 연원

을 궁리하여 진정한 서법의 정체를 알고, 금석학의 고증을 통한 유적의 연구로써 우리의 고유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아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려는 이념이 있다 하겠다. 이러한 그의 주체의식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장점을 취하고 우리의 결점을 보완하려는 학자적 인격으로서 당시의 개화사상을 지도할 수 있는 의식이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완당의 학문적 특징은 객체와 주체를 모두 사실에다 두고 물리적인 대상만 아니라 정신적인 주체를 잘 조화시켜 나가는 데 두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해박한 지식을 절문하고 근사하여 공허한 데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것을 명변하는 위학(爲學) 태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상은 외적인 물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심기를 평정하여 가치기준을 실사에다 두고 구진(求真)하려는 것으로 실학사상의 지도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그는 금석학의 연구를 통하여 올바른 역사를 이해시켰으며 그가 독창한 추사체라는 서체도 즐지에 묘사를 위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가에서 진리 탐구 방법인 성문(聖門)의 격치지학(格致之學)과 다름이 없는²³⁾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연원과 변천을 고찰하고 가의처(可議處)를 찾아 중가의 장점을 택선하는 위학태도로서 예법의 원류인 종정비갈의 연구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그는 여러 방면에서 단순한 물질주의나 실용주의가 아니라 의리를 바탕으로 윤리적인 가치문제를 무시하지 않는 사상을 지니고 유학의 근본적인 도리를 실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완당의 사상을 요약하면 주객(主客)의 합일과 주체성, 그리고 위학(爲學)에 있어서 사승이 있는 존고와 공평한 견식에서 오는 절충과 문호를 따로 세우지 않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고증성을 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註〉

- 1) 『조선왕조실록』 49권, p.608.
- 2) 상계서
- 3) 『완당선생전집』 권5, “여리월정서”
- 4) 상계서
- 5) 『한서』 권52, “하간현왕전” 안사고주
- 6) 『완당선생전집』 권두, “소전”
- 7) 『완당선생전집』 권1, “실사구시설” 부후서
- 8) 상계서
- 9) 『연경실집』 권11, “한학사승기서”
- 10) 『완당선생전집』 권1, “실사구시설” 참조
- 11) 『완당선생전집』 권3
- 12) 『완당선생전집』 권3, “여권돈인서”
- 13) 양계초, 『청대학술개론』 제17절, p.45
- 14) 『완당선생전집』 권1, “진흥이비정”
- 15) 『완당선생전집』 권3, “여권돈인서”
- 16) 완당집 소수 근역서화징
- 17) 『완당선생전집』 권7, 잡저
- 18) 『완당선생전집』 권6, 제발
- 19) 『헌제집』 권십일, “제유요선소장추사유목”
- 20) 『초산잡저』 소수 근역서화징
- 21) 『완당선생전집』 권2, “여우아서”
- 22) 『완당선생전집』 권6, 제발
- 23) 완당척독상 ‘상석과서’

서경요

성균관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성균관대 유학대학장, 유학대학원장, 유교신문사 편집인 겸 주간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한문교육과 교수,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 유교지성사론』, 『한국유학의 정신사적 전통』 등이 있다.